



리포트

줄어드는 지방대 학령 인구,
부산대 상권 쇠퇴의 원인인가?

온라인게임

대학가에서 살아남기
: 변화에 맞서라!



팀 소개 인사 및 각오

저희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나눔지기' 팀입니다. 최근 미디어와 모바일 기기의 발전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해진 만큼, 사실을 전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허위정보를 빈번하게 마주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범람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여러 정보에 혼란스러워하며 그중 진실한 정보와 거짓된 정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정확한 팩트체크를 통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주제인 '경제'는 우리의 일상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경제와 관련된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넘어선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제 이슈를 팩트체크하여,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에 접근하고 경제 지식을 쌓을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팩트체커라는 역할에 앞장서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팩트체크 활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눔지기'라는 팀명에 걸맞게 팩트체커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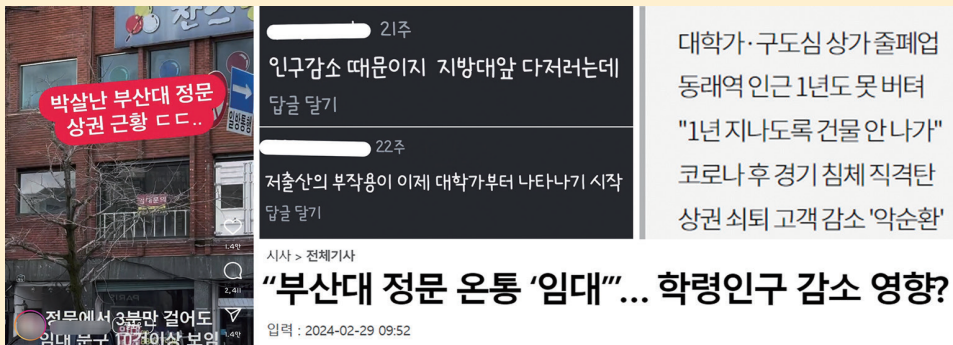
팩트체크 리포트

줄어드는 지방대 학령 인구, 부산대 상권 쇠퇴의 원인인가?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2024년 2월, 부산대학교 정문 앞의 상가 모습들이 담긴 영상이 SNS에 게시되며 화제가 되었다. 이전과 180도 달라진 대학가 분위기에 부산대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은 해당 영상에 보이는 부산대 상권의 모습에 여러 이유를 제기했다. 대부분의 반응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의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이다.’, ‘높은 임대료와 고금리로 인한 것이다.’ 등이었다. 이후 여러 언론에서도 부산대 상권의 쇠퇴에 관한 뉴스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언론 역시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후 경기 침체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르포] 핵심 상권 4층 건물 중 3개 층 ‘텅텅’, 신항 상권 한 집 건너 ‘임대’ [자영업자 ‘무덤’된 부산]

입력: 2024-07-01 20:30:00



여러 기사와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의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이 모든 요소가 부산대 상권 쇠퇴의 진짜 원인일까?’라는 질문이 던져졌고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부산대학교 학생으로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거나 학생 수가 적다는 것을 체감하기 어려웠기에 ‘과연 학령인구는 정말 감소하고 있을까? 만약 학령인구 감소가 사실이라도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할까?’라는 다음 궁금증이 생겨났다. 어쩌면 사람들이 원인으로 지적하는 학령인구 감소가 수도권 집중화, 지방 및 지방대 소멸 등의 사회 이슈에 노출된 사람들의 사고에서 발생한 잘못된 편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경기 침체 역시 부산대 상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과연 부산대 상권 쇠퇴 주요 원인으로 보는 게 맞을지 등등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부산대 상권 쇠퇴 이유로 가장 많이 손꼽히는 경기 침체와 부산대 학령인구 감소가 실제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인지 알아보려고 결심했고, ‘줄어드는 지방대 학령인구, 부산대 상권 쇠퇴의 원인인가?’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주제를 팩트체크함으로써 부산대 상권 쇠퇴의 진짜 원인을 밝혀내고, 사람들의 편견 혹은 잘못된 프레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그러므로 ‘지방’, ‘자영업자의 어려운 형편’과 같은 키워드가 만든 틀에서 벗어나 보다 중립적인 시선으로 부산대 상권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며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고금리 및 고물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저출산과 수도권

[사진 출처]

- 인스타그램(온라인 커뮤니티)
- 최예슬, ““부산대 정문 온통 ‘임대’”... 학령 인구 감소 영향?“, 국민일보, 2024.02.29.,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844269&code=61121111&cp=nv>
-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844269&code=61121111&cp=nv>
- 양보원, “[르포] 핵심 상권 4층 건물 중 3개 층 ‘텅텅’, 신항 상권 한 집 건너 ‘임대’ [자영업자 ‘무덤’된 부산]”, 부산일보, 2024.07.01.,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70118203499700>

쏟림 현상으로 인한 지방의 학령인구 감소'라는 여러 사회경제적 이슈와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3고, 경기 침체, 저출산 등에 대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1. 부산대 상권 현황

1.1 부산대 상권 공실률

-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 2017~2024년 공실률 조사

1.2 부산대 상권 및 주변 지하철역 유동 인구

- 소상공인 상권분석시스템 → 현재 부산대 상권 유동 인구 조사

- 부산교통공사 「수송수입 실적(역별승하차)」 → 2017~2023년 부산대역 유동 인구 조사

2. 부산대학교 학령 인구 감소 현황

3.1 부산대학교 입학 정원

- 부산대학교 「통계연보」 → 2017~2024년 부산대 입학 정원 조사

3.2 부산대학교 재학생 현황

- 부산대학교 「통계연보」 → 2017~2024년 부산대 재학생 수 조사

3. 부산대 상권 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 자영업자 인터뷰 → 경기 침체가 실제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정도 파악

* 금정구청 인터뷰 → 부산대 상권 주요 원인 및 경기 침체의 영향 파악

2.1 고금리

- 한국은행 통계자료 → 기준금리 조사

-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 2017~2024년 가계대출금리 조사

-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가계부채 조사

2.2 고물가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 농축산물 물가 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등락률 조사

2.3 임대료

-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 2017~2024년 임대료 조사

4. 대학가 성장과 쇠퇴(중심 상권의 변화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김동현 교수 인터뷰 → 대학가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 조사

* 부산경상대학교 부동산과 황영우 교수 인터뷰 → 대학가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 조사

4.1 소비자 트렌드 변화

- 新 소비공식 :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소비트렌드 → 코로나19로 변화한 소비자 트렌드 조사

- 2024년, 소비자가 주도하는 슬기로운 불황 트렌드 → 최신 소비자 트렌드 조사

- 채널 PNU 「부산대학교 리포트」 시리즈 뉴스 기사 → 부산대 상권 쇠퇴 원인 조사

4.2 대안 상권의 성장

- BNK 금융연구소 '동남아 주요 상권 변화 분석' → 부산의 성장 상권과 쇠퇴 상권

- 부산 지역 대학교 학생 대상 설문조사 → 소비자 소비 성향 및 선호 상권 분석

- 서면·광안리 상권 트렌드 분석 자료 → 부산 대안 상권(서면·광안리) 트렌드 분석

- 수도권 대학가 상권 쇠퇴 관련 뉴스 자료 → 신촌·이대 대학 상권 쇠퇴 원인 조사

- 최근 중심 상권 트렌드 분석 자료 → 성수동 트렌드 분석

4.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이동 수단 다양화

- "디지털 전환 시대, 시민 생활변화에 따른 서울 도시 공간의 변화와 전망"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활모습 변화 조사

체크해보기

부산대 상권 현황

▶ 팩트체크 1. 부산대 상권은 쇠퇴하고 있나?

경기 침체와 학령 인구 감소가 부산대 상권 쇠퇴의 원인인지 인과관계를 따져보기에 앞서, 먼저 실제 부산대 상권이 정말로 쇠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부산대 상권 공실률과 부산대 상권 및 주변 지하철역 유동 인구 자료를 통해 부산대 상권의 현 상황을 확인해 보자.

1) 부산대 상권 공실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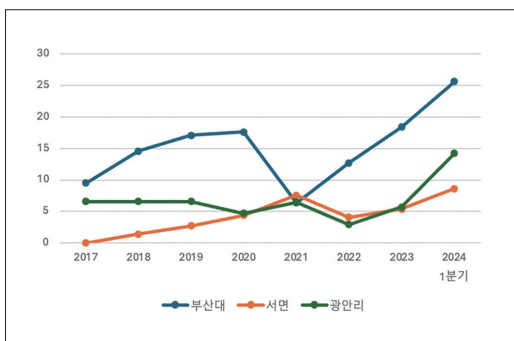
〈연도별 소규모 상가 공실률〉 (단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분기
부산대	9.5	14.6	17.1	17.6	6.4	12.7	18.4	25.6
서면	0.0	1.4	2.7	4.4	7.6	4.1	5.4	8.6
광안리	6.6	6.6	6.6	4.7	6.5	2.9	5.7	14.2

출처: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 본 표는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분기별 공실률의 평균값으로 연도별 공실률을 나타낸 것

* 소규모 상가: 건축물대장상의 주 용도가 상가이고 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인 일반건축물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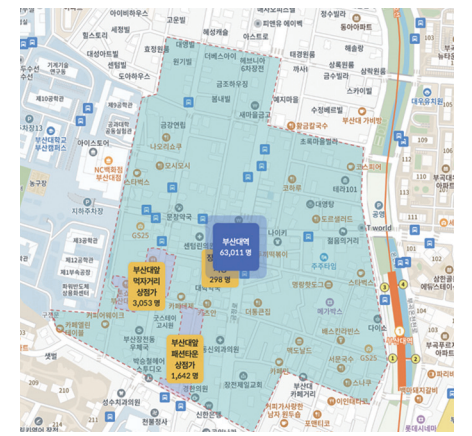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는 분기별로 상권별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하 공실률)을 제공한다. 표에 따르면 2018년 부산대 상권 공실률은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공실률이 추가로 증가했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2021년에는 2017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공실률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4년 1분기까지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부산대 공실률을 부산 내 타 중심 상권인 서면, 광안리 상권의 공실률과 비교해 보았다. 세 상권 모두 간혹 공실률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부산대 상권의 경우 타 중심 상권에 비해 공실률의 증가 폭이 가파른 것을 고려한다면, 부산 타 중심 상권에 비해 부산대 상권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부산대 상권 및 주변 지하철역 유동 인구

소상공인마당이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부산대 상권 유동 인구를 조사했다. 부산대학교 인근 주요 상권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동으로 설정되었으며, 각 수치를 모두 더하면 2024년 7월 13일 기준 68,000명의 유동 인구(유동 인구: SKT 통신사 외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전국 50M 단위의 셀로 추정된 해당 월의 일평균 추정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



[그림] 부산대역, 부산대 앞 먹자거리 상점가, 부산대 앞 패션타운 상점가, 장전상가시장

〈연도별 부산대역 일평균 승하차 인원〉

(단위: 명)

연도	일평균 승차	일평균 하차	합계
2017	17,949	19,117	37,066
2018	17,748	18,813	36,561
2019	17,392	18,346	35,738
2020	11,412	11,997	23,409
2021	11,854	12,313	24,167
2022	13,808	14,185	27,993
2023	14,579	14,892	29,471
2024 1분기	14,274	14,493	28,767

출처: 부산교통공사 「수송수입 실적(역별승하차)」

다음으로 부산대 상권 주변 지하철역 이용자 수를 이용하여 유동 인구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다. 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평균 36,000명대를 기록하던 승하차 인원 합계는 2019년 1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여 전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2020년 23,000명대로 약 36% 감소하였다.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가 완화되고, 부분적으로 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2023년까지 이어졌지만, 여전히 20,000명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2024년 1분기 다시 감소하였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부산대역 일평균 승하차 인원을 통해 부산대 상권이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부산대 상권 공실률은 부산의 타 중심 상권에 비해 높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부산대역 일평균 승하차 인원이 2007년 37,000여 명에 비해 10,0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을 보아, '부산대 상권은 쇠퇴하고 있나?'는 사실이다.

부산대학교 학령 인구 감소 현황

▶ 팩트체크 2. 부산대 학령인구 감소는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 원인인가?

1) 부산대학교 입학 정원 및 재학생 현황

〈연도별 부산대학교 입학 정원 및 재학생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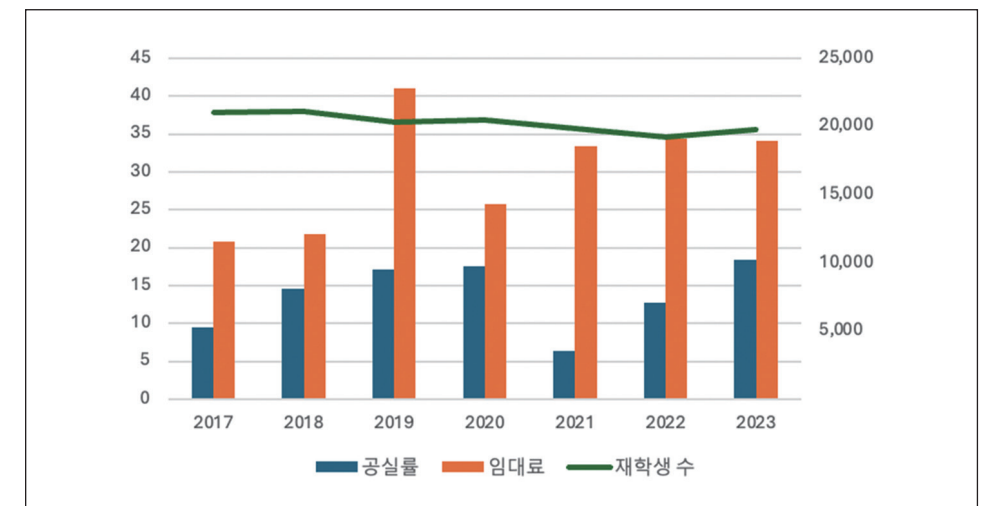
연도	입학 정원	현황	
		합계	
		재적생	재학생
2017	4,251	29,406	21,029
2018	4,251	29,091	21,121
2019	4,288	28,683	20,346
2020	4,288	28,124	20,502
2021	4,287	27,487	19,880
2022	4,257	26,611	19,258
2023	4,291	26,400	19,759

출처: 부산대학교 「통계연보」

위 표는 부산대학교가 매년 제공하는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연도별 부산대학교 입학

정원 및 재학생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입학정원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가장 최근인 2023년에 입학정원은 최대치를 달성했다. 물론 이는 증가율로 따지면 2017년 대비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대학가 상권 쇠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부산대학교 학생 수가 부산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재학생 현황도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대학가를 이용하는 인원은 재학생 수이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재학생 수를 기록했던 2018년에 비해 2022년에는 재학생 수가 약 9% 감소하였다. 1년 뒤인 2023년에 그 수가 다시 늘어나긴 했지만, 재학생 수가 2만 명대에서 1만 명대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부산대 상권 소규모 상가 공실률 및 임대료, 재학생 현황〉



출처: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부산대학교 「통계연보」

위 분석을 통해 부산대 학령인구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산대 학령인구 감소가 부산대 상권 쇠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더 확인해 보아야 한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17년과 비교하였을 때 2023년 부산대 상권 공실률은 94% 증가하였고, 임대료는 65% 증가하여 상권이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그에 비해 부산대 재학생 수는 6%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단 6%의 재학생 수 감소가 부산대 상권 쇠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근 상인 및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부산대학교

인근에서 한식집을 운영 중인 탁혜경 사장은 “최근 부산대학교 재학생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학령인구 감소를 체감하고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부산대학교 학생 수 감소를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배달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홀 상황은 방학을 제외하고 이전과 비슷하여 부산대 재학생 수 감소가 가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응답하였다.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이찬호 교수는 “몇몇 뉴스나 SNS에서 부산대 상권 쇠퇴 원인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꼽았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현재 재학생의 수 약 6%가량 감소했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상권 쇠퇴를 정말 학령인구 감소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부산대학교는 ‘줄어드는 지방대 학령인구’ 현상으로 인해 정원이 미달하거나 학생 수가 감소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로 부산대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부산대 앞 상권 이용자가 줄어 상권이 쇠퇴할 것이라는 가정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김동현 교수는 동일 질문에 “먼저, 부산대 상권은 대학생만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교직원까지 합치면 부산대학교 인원은 약 30,000명 이상으로 국내 대학 4위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부산대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구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부산대학교 재학생 수가 감소하여 상권이 쇠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최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은 인구 구조상 베이비붐 1차와 2차 모두 포함되어 있고 노인 사망률이 낮아져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대학교 재학생 수 감소가 부산대 상권에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더욱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라고 응답했다.

아직 재학생 수 감소는 자영업자가 체감하기 힘든 수준이며, 가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교수 인터뷰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가 실제 체감되기 위해서는 약 30~50% 이상은 감소해야 한다. 또한 학생, 교수, 교직원을 포함한 부산대학교 인원은 약 30,000명이므로 이는 상권 활성화에 충분한 인구다. 따라서 재학생 수의 6% 감소를 상권 쇠퇴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이를 통해 ‘부산대 학령인구 감소는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 원인인가?’는 사실이 아님을 검증했다.

경기 침체의 영향

▶ 팩트체크 3. 현재 경기 침체는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 원인인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회복되지 못한 채 금리와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또한 금리, 물가, 유가가 모두 상승하고 있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를 뜻하는 ‘3고’ 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경기 침체 속 금리 및 물가 상승은 국민의 일상 곳곳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대학가 상권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소비자인 대학생과 지역 주민, 생산자인 인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현재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과연 경제적 요인이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인지 확인해 보았다.

1) 고금리와 고물가

탁혜경 한식집 사장(자영업자) 인터뷰

Q1. 부산대학교 근처에서 장사한 지 얼마 정도 되셨나요?

-> 2018년 부산대학교 무지개문 근처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코로나19로 홀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배달로만 가게를 운영하다가, 약 2년 전쯤 부산대학교 쪽문 근처에서 다시 홀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2. 최근 언론에서 고금리, 고물가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 확실히 최근 고금리, 고물가 시대임을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듯하며, 저희 가게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 때문에 음식을 팔아도 이윤이 얼마 남지 않고, 배달 앱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도 높아서 더욱 저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Q3. 요즘 부산대학교 앞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요즘 많이들 어려워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절, 홀을 운영하던 많은 가게가 큰 타격을 받

왔고 정부가 이러한 자영업자를 위해 저금리 정책을 지원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자만 갚으면 되는 상황이라 가게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최근 원금 상황이 다가오면서 가게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와 함께 고금리, 고물가 시대와 맞물려서 이익이 얼마 남지 않는 자영업자가 임대료를 감당하기 더욱 힘들어진 듯합니다.

위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는 고금리와 고물가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수준을 충분히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고물가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판매량임에도 적은 수익을 남기게 했다. 또한 배달 앱을 사용하는 가게의 경우, 고물가와 더불어 배달 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높아 수익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물가 상승은 다음과 같은 추세다.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연도	지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소비자물가상승률(총지수)
2017		97.6	-
2018		99.1	1.5
2019		99.5	0.4
2020		100.0	0.5
2021		102.5	2.5
2022		107.7	5.1
2023		111.6	3.6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인 100으로 하였을 때, 소비자물가지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물가 상승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물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2022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1%였으며, 2023년에도 3.6%로 급격한 물가 상승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급격한 물가 상승은 소비자의 소비 수준과 소비량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생산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공급과 수요 법칙에 걸림돌이 된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이전보다 판매량이 떨어지거나 동일한 판매량에도 남는 수익이 적어진다. 게다가, 이와 같은 고물가와 함께 코로나19 당시 받았던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맞물려 자영업자의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

고금리 역시 어려운 형편의 자영업자가 대출받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현재 금리 수준을 살펴보자. 한국은행에 따른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0.5%로 거의 최저점을 찍은 후, 2021년 8월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3.5%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 표를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2020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에는 5.08%(잔액 기준)로 최근 8년 중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2024년 1분기까지도 5%(잔액 기준)로 높은 대출금리를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

(단위: 연리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1분기)
신규취급액	3.46	3.68	3.24	2.75	3.10	4.60	4.96	4.56
잔액	3.35	3.62	3.34	2.77	3.01	4.66	5.08	5.00

출처: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높은 가계대출 금리는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이 큼을 시사한다. 이러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어려워지면, 비은행 대출 혹은 기타 대출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현대경제원의 경제주평에 따르면,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누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채의 질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1년 4분기를 기준으로 국내 가계대출은 1,756조 원이 누적되었으며, 그중 비은행 대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기타 대출도 많이 증가했다. 이러한 국내 가계대출의 비중 형태는 부채의 악화 정도가 심각함을 보여준다.¹⁾ 그리고 아래 표를 보면, 2022년, 2023년에도 자영업자의 부채 보유액이 각각 12,381 만원, 12,097 만원으로 종사자지위 중 가장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가구주 종사자지위별 부채 보유액〉

(단위: 만원)

연도	종사자지위	전체	상용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기타(무직 등)
2022년		9,170	11,450	3,444	12,381	4,310
2023년		9,186	11,360	3,533	12,097	4,714

출처: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 신지영,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금리 상승, 자영업자와 청년층 부담 급증”, 경제주평, 22-06(통권 928호), 2022.05.20., p.2

2) 높은 임대료

금정구청 일자리경제과 황현숙 주무관 인터뷰

Q1. 최근 부산대학교 앞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권 쇠퇴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부산대학교 앞 상권의 범위는 현재 정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께서 단체를 조직화하지 않으시고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얼마나 쇠퇴하였는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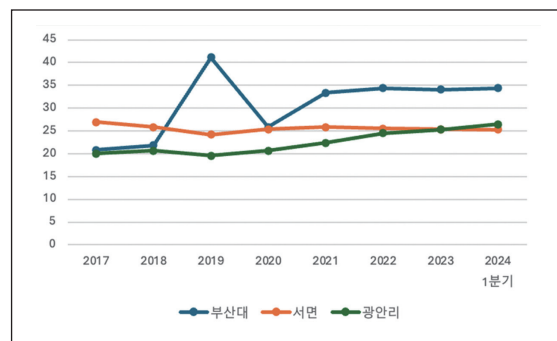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부산대학교 앞은 현재 임대료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권이 몰락하는 원인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 금리 인상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온천천 축제와 같이 지역 축제가 열리게 되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며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임대료의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주변 소상공인이 떠나게 되면서 다시 지역은 쇠락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금정구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서 인구 문제, 타 주변 상권으로의 인구 유출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연도별 소규모 상가 임대료〉

(단위: 천원/㎡)

연도 상권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1분기)
부산대	20.8	21.8	41.2	36.0	33.4	34.3	34.1	34.3
서면	26.9	25.8	24.2	25.4	25.8	25.5	25.4	25.3
광안리	20	20.7	19.6	20.7	22.4	24.5	25.3	26.5

출처: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상권의 몰락에 임대료 상승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현재 부산대 상권의 임대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전인 2017, 2018년도에는 부산대 앞 소규모 상가 임대료가 각각 20.8천원/㎡, 21.8천원/㎡이었으나

2019년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가 41.2천원/㎡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후 2020, 2021년도에는 조금씩 하강하는 듯했으나 상승 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약 34천원/㎡의 수준을 유지하며 높은 임대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서면과 광안리의 소규모 상가 임대료를 살펴보면 부산대 임대료보다는 비교적 큰 기복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로나가 시작된 2019년에는 잠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서면은 2017년 대비 현재 임대료가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거의 25천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그리고 광안리 역시 2017년 대비 현재 임대료가 약 32.5% 증가했으나, 부산대 앞 현재 임대료가 2017년 대비 약 65%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 폭이 비교적 작다고 볼 수 있다.

부산대 소규모 상가 임대료는 높은 수준이며, 다른 중심 상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매우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선 연도별 공실률 표와 함께 보았을 때 부산대 앞 높은 임대료가 상권 공실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금리, 고물가로 적어진 수익으로 계속 증가하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점점 어려워진 자영업자가 상가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타 주요 상권보다 월등히 높은 부산대 상권 임대료는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쇠퇴하는 부산대 상권 속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높은 임대료, 고금리 및 고물가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부산대 상권 쇠퇴 가속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부산대 상권 쇠퇴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김동현 교수는 “고금리, 고물가, 높은 임대료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부산대학교 상권 쇠퇴 원인으로서는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고금리, 고물가, 임대료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부산대학교와 같은 특정 대학 상권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전후로 악화한 경제 상황 역시 대학가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 대부분의 상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부산대와 몇몇 대학가는 쇠퇴기를 겪고 있지만, 부산의 '서면, 광안리', 서울의 '성수, 연남' 등 인근 대안 상권은 여전히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부산대 상권 내에서도 장사가 잘되는 가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산대학교 상권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지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부산경상대 부동산과 황영우 교수 역시 동일 질문에 “우선, 고금리와 고물가와 같은 경제적 요소가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대 상권 뿐만 아니라 모든 상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면, 광안리 역시 거시경제적 측면으로 부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그중 부산대 상권의 상황이 가장 심각할 뿐입니다. 거시 경제적 문제는 모든 상권이 타격을 받는 것이므로 부산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시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응답했다. 현재 경기 침체와 금리 및 물가 수준은 모든 지역과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영향이 미치는 정도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민영 카페 사장(자영업자) 인터뷰

Q1. 부산대학교 근처에서 장사한 지 얼마 정도 되셨나요?

-> 2012년부터 부산대 북문 앞에서 카페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Q2. 최근 언론에서 고금리, 고물가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 네, 고금리, 고물가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저희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수량을 파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다른 가게들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Q3. 요즘 부산대학교 앞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그렇지 않아도 요즘 부산대 앞에 임대 상가가 많이 늘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어려워진 가게들이 다시 회복하지 못해 상권이 많이 쇠퇴한 것 같습니다.

예로, 같은 부산대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같은 고금리, 고물가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민영 카페 사장에 따르면, 자신의 카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판매 수익에 있어 큰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동일한 상권이기에 고금리, 고물가,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유사할 텐데도, 이처럼 상권 내 가게 분위기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기도 한다. 어떤 가게는 손님이 거의 드나들지 않아 문을 닫아야 하지만, 어떤 가게는 손님이 항상 북적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거시환경에서도 가게의 업종, 판매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따라 불황 체감도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와 높은 임대료가 자영업자의 형편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금리, 고물가와 같은 경제적 요인은 비단 부산대 상권에서만 적용되는 요소가 아니며 부산대와 부산 내 타 상권을 포함해 전국 모든 상권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도, 어떤 상권은 쇠퇴하는 반면 어떤 상권은 성장해 나가기도 한다. 높은 임대료 역시 타 상권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은 확인되었으나, 동일한 상권 내에서도 성장과 쇠퇴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경기 침체는 부산대에만 국한된 요인이 아니므로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 경기 침체는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 원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다른 미시적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가 성장과 쇠퇴(중심 상권의 변화를 중심으로)

▶ 팩트체크 4.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앞선 팩트체크를 통해 경기 침체와 부산대 학령인구 감소가 부산대 상권 쇠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가지 요인 모두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이 의문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김동현 교수 인터뷰

Q1. 최근 뉴스나 SNS에서 부산대 정문 인근 빈 상가가 늘어났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접하신 적 있나요?

-> 네, 최근 많은 분이 부산대 상권 문제에 관심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 상권의 쇠퇴는 비단 부산대 상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현재 수도권 주요 대학 상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 상권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서울의 대표적인 대학가 상권 중 하나인 신촌과 이대도 옛날처럼 활성화된 상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Q2.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산대학교 상권 쇠퇴의 주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부산대학교 상권 쇠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영업자가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부산대학교 상권이 예전만큼의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대학생들은 단체로 대형 술집에서 술을 마시곤 하였지만 요즘은 한 잔을 마시더라도 분위기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이동 수단의 발달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맛집이 원거리에 있으면 그냥 집 근처에서 식사를 해결하였지만, 요즘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교통수단이 부족하였지만, 최근에는 대중교통이 잘 갖추어져 있고, 자차가 없어도 차량을 잠시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겨나 이동의 편의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부산대학교 상권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의류 및 화장품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김동현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산대학교 상권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 대안 상권의 성장,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이동 수단의 다양화로 인한 타 중심 상권으로의 유동 인구 유출로 볼 수 있다.

부산경상대학교 부동산과 황영우 교수 인터뷰

Q1. 최근 뉴스나 SNS에서 부산대 정문 인근 빈 상가가 늘어났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접하신 적 있나요?

-> 매우 많습니다. 관련 기사도 많이 접했고, 부산일보가 보도한 기사 중 '부산 소규모 상가 공실률' 자료 또한 보았습니다. 부산시 전체 중 부산대 앞 상권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기사 한 명이 찾아와 상권 관련 기사를 쓰기 위해 자문 하기도 했는데, 당시 살펴본 자료에서도 부산대 앞 상권의 공실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Q2.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산대학교 상권 쇠퇴의 주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상권 쇠퇴의 시발점은 코로나19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이어지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상황이 모든 상권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부산대 상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와 같은 어트랙션(attraction)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 부산대 상권의 주역이었던 10대 유인력이 줄어들고 젊은 층의 소비력이 약화하는 등의 현상이 모여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듯합니다. 단순 지방의 문제, 지방대의 학령인구 문제라고 보기에는 수도권 대학에서도 대학가 상권 쇠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도권 대학가 상권 쇠퇴 문제 역시 부산대와 유사하게 거시적인 상황보다 미시적인 요인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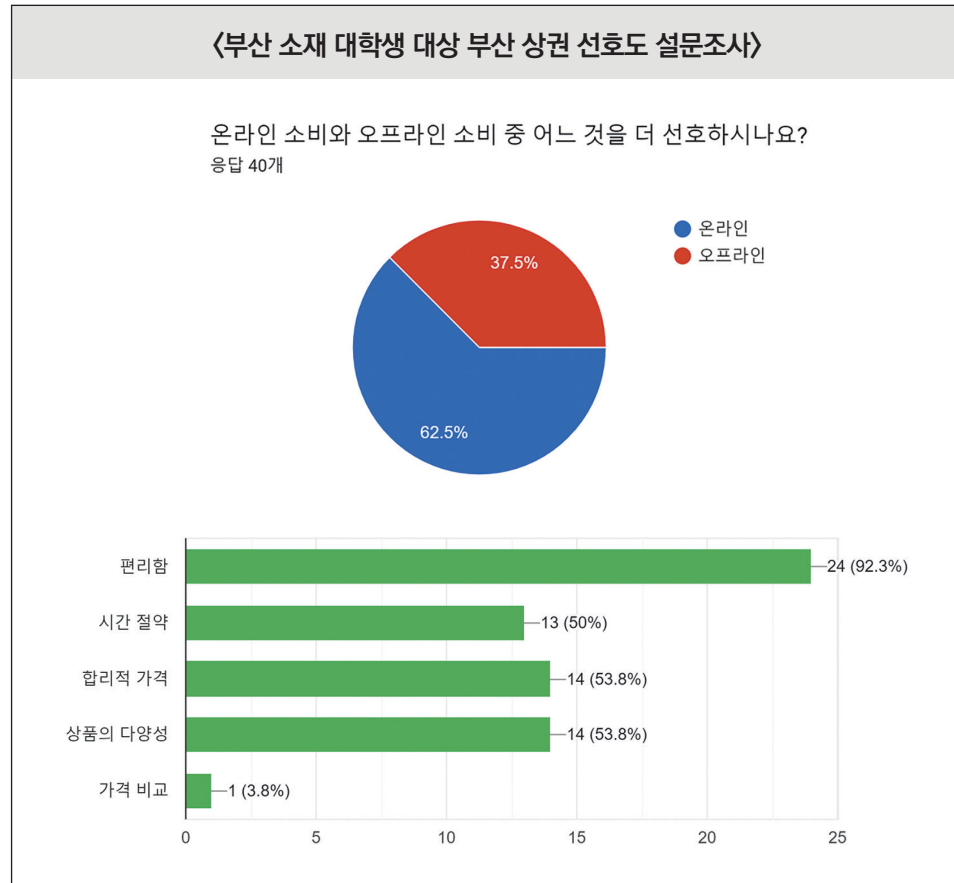
황영우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산대 상권이 다시 활성화하지 못하고 계속 쇠퇴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핫플레이스와 같은 어트랙션 요인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는 10대 청소년과 20, 30대 젊은 층 유입 감소로 이어지므로, 부산대 상권 활성화에 있어 소비자 트렌드 변화와 기술 발달에 맞춘 상권 변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1) 소비자 트렌드 변화

코로나가 불러온 소비패턴의 변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에게 '집콕'을 하게하고 '비대면'이라는 일상의 행동패턴이 자리 잡게 하였다. 하지만, 비참했던 바이러스의 공격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제 '워드코로나'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시 나아가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는 사회의 모든 면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나타나게 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나타난지 만 2년이 지나가지만, 종식을 예상하기 힘든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트렌드들은 이제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표적인 소비트렌드의 변화를 통하여 이후 더욱 강화될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코로나연령을 보지 못한 워드 코로나 시대인 지금, 사람들은 팬데믹 초기의 준비 없이 급격하게 전환되었던 '언택트' 모델에서 이제는 뉴노멀이 된 일상이 된 언택트 시대에서 살아 가고 있다. 반복되는 변이바이러스의 출현과 대면활동 제한으로 경험했던 비대면 소비경험은 이전 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진보와 인터넷 환경 개선은 비대면 소비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고 기존 오프라인 소비의 주 고객층이던 중장년층 소비자들까지도 유입하여 고객층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시대 소비 형태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최근의 소비트렌드 변화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94%가 코로나 이후 이른바 '집콕'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는데, 집에 머무르면서 증가한 활동으로는 온라인 쇼핑, 영화 시청, 요리, 운동 등의 순이었다. 쇼핑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 쇼핑의 이용이 증가하였는데, 응답자의 78%가 코로나 이전보다 온라인 쇼핑 이용이 증가하였다고 답하였다. 온라인쇼핑 구입 빈도 증가 품목으로 71%의 응답자가 식음료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림 1).

출처: 新 소비공식 :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소비트렌드, 충북 Issue & Trend, 2022, p.1~2

코로나19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 속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의 모든 면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나타나게 했다. 과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소비자는 비대면 소비를 경험했고, 이러한 형태의 소비는 소비자가 이전보다 더 편리하고 광범위한 소비가 가능하도록 진화해 왔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진보와 인터넷 환경 개선도 비대면 소비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지난 2024년 8월 29부터 9월 5일까지 약 일주일간 ‘부산 소재 대학생 대상 부산 상권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설문조사는 구글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산 지역 대학교 학생 40명이 응답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와 오프라인 소비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40명 중 62.5%에 해당하는 25명이

온라인을 선택하였다. 온라인 소비를 선택한 답변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소비를 더 선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선택 가능)’ 질문에서 대상자 25명 중 24명이 편리함을 선택한 것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로 소비자 트렌드가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국내 소비 수준이 꾸준히 성장하면서도, 소비자들은 불황 속에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과 함께 지출을 줄이기 꺼리는 이중적인 감정에 직면하기 쉽다. 이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자원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든 채우려는 ‘양극화 소비’를 선보인다. 즉, 일상 속 매일 소비해야 하는 재화에는 가성비를 따지지만, 연말이나 기념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고가의 상품을 택하는 것이다.

부산 대학가 상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대학가에서 고급 재화나 서비스보다는 가벼운 식사 혹은 생활용품과 같은 일상적 재화를 이용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부산 소재 대학생 대상 부산 상권 선호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본인이 추구하는 소비 성향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까운가요?’라는 질문에 40명 중 35명(87.5%)이 가성비와 스몰 럭셔리 중 가성비를 선택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가성비를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산 대학가 상권이 양적·질적 가성비를 원하는 대학생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음 문항의 답변을 통해 알 수 있다. ‘자신의 대학 상권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가격이 비싸서’, ‘상품이 다양하지 않고 음식의 맛이 없어서’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부산대 상권은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쇠퇴하는 대표적인 상권 중 하나이다. 과거, 부산대 상권을 일컫는 일명 ‘부산대학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독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1990년대에는 부산대학교 인근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공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캠퍼스 앞 큰 도로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무대가 되었고, 부산대는 자연스럽게 청년 문화의 공간으로 변하였다. 덕분에 부산대학로는 인디, 힙합 등 다양한 문화를 선도하였고, 온천천 일대 그래피티 문화가 확산하여 젊은이들이 부산대 상권에 활력을 더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상업 공간이 늘어나며 대학 문화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다. 이후 과도한 자본이 유입되며 부산대학로는 점차 획일화된 상업 공간으로 변모했고, 특색 있는 상권과 학생들을 위한 문화 시설이 부족하다는 청년들의 불만도 제기되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는 텅 비었고,

이는 곧바로 부산대학로의 문화적·상업적 침체를 가속했다. 다행히 코로나19 이후 상권은 천천히 회복세를 보였지만, 오랜 시간 부산대학로를 지켜오던 가게들이 폐업하고, 그 자리에 획일화된 가맹점이 들어서며, 더 이상 부산대학로만의 개성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²⁾ 그리고 현재 부산대 상권은 소비자 트렌드를 쫓지 못한 채 노후화를 겪으며 쇠퇴의 길을 겪고 있다.

2) 핫플레이스 부족과 대안 상권의 성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중심 상권은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여 쇠퇴하고, 소비자는 새로 뜨는 핫플레이스가 준비한 상권을 선호하여 다른 대안 상권이 성장하게 된다.

① 부산

〈부산 주요 상권 현황〉

구분	상권수	성장	정체	쇠퇴
해운대구	8개	우1·3동, 우2동, 재송1동, 좌1동, 좌2동	빈어1동, 중1동	반송1동
동래구	7개	명륜동, 안락2동	안락1동, 온천3동	수민동, 온천1동, 온천2동
부산진구	7개	부전2동, 전포1동	당감1동, 범천1동, 양정1동, 전포2동	부전1동
사하구	6개	하단2동	다대1동, 당리동, 장림2동, 하단1동	괴정3동
사상구	5개	-	괘법동, 임곡동, 학장동	감전동, 모라1동
수영구	5개	남천1동, 민락동	광인2동, 수영동	망미1동
연제구	5개	연산1동, 연산5동	거제1동, 연산4동, 연산9동	-
강서구	4개	녹산동, 대저1동, 대저2동, 영지1·2동	-	-
금정구	4개	구서1동	-	남산동, 서3동, 장전3동
북구	4개	덕천2동, 화명3동	-	구포1동, 구포2동
중구	4개	중앙동	광복동, 남포동, 부평동	-
남구	3개	대연3동, 용호1동	대연1동	-
동구	3개	범일2동	-	수정2동, 초량3동
기장군	2개	기장읍, 정관읍	-	-
서구	2개	-	암남동	총무동
영도구	1개	-	-	남항동
부산 전체	70개	27개 (38.6%)	25개 (35.7%)	18개 (25.7%)

출처: 백충기,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BNK 경제인사이트, 2020, p.2-5

2) 채널PNU 특별취재팀, “[부산대학로 리포트] (1) 78년의 흥망성쇠”, 채널PNU, 2024.03.01., <https://channelpnu.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4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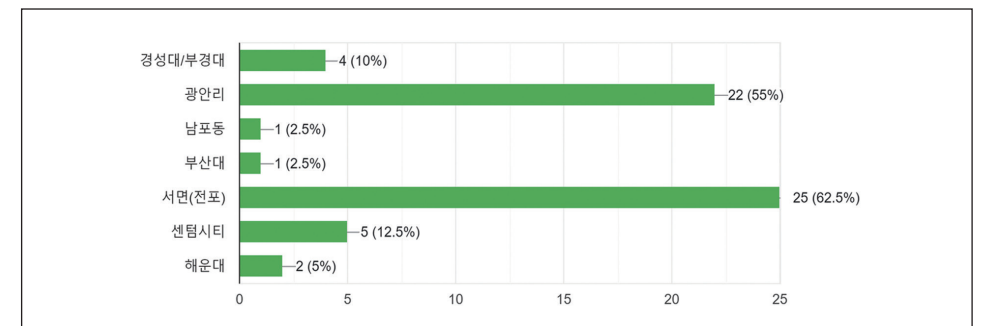
〈부산 주요 상권 현황〉

구분	내 용
성장 상권	- 2010년 대비 2018년 사업체 수가 평균치 이상 늘어난 상권 - 2010년 사업체 수가 1,000개 미만이었으나 2018년 1,000개 이상으로 증가한 상권
정체 상권	- 2010년 대비 2018년 사업체 수가 늘어났으나 지역별 사업체 수 증감의 평균치
쇠퇴 상권	- 2010년 대비 2018년 사업체 수가 감소한 상권

출처: 백충기,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BNK 경제인사이트, 2020, p.2-5

먼저 부산의 상권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자. 상권은 성장 단계별로 성장, 정체, 쇠퇴 상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산은 주요 상권 70개 중 성장상권 27개, 정체상권 25개, 쇠퇴상권 18개로 파악되었다. 부산 지역 중 가장 많은 상권이 자리 잡은 곳은 해운대구로 8개, 다음으로 동래구와 부산진구가 7개. 기장군, 서구, 영도구의 경우 지역 내 상권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상권의 경우 해운대구(우1, 2, 3동, 재송1동, 좌1, 2동)에서 가장 많으며, 주요 원인으로 센텀시티와 마린시티를 중심으로 한 고급 주거지, 대형 백화점, 공공기관, 첨단기업이 지속적으로 입주한 것과 신도시의 안정적 수요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쇠퇴 상권은 동래구(수민동, 온천1동, 온천2동)와 금정구(남산동, 서3동, 장전3동-현재는 장전2동에 속함)가 각각 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상권 지형이 변화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원한 상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현재 정체 또는 쇠퇴하고 있는 상권의 소비자들은 ‘성장 상권’으로 떠오르는 대안 상권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부산 소재 대학생 대상 부산 상권 선호도 설문조사〉



‘부산 소재 대학생 대상 부산 상권 선호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산 지역 대학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뜨고 있는 부산 상권으로 서면(전포)과 광안리가 독보적임을 알 수 있다. 40명 중 과반수인 25명(62.5%)이 서면(전포), 22명(55%)이 광안리를 선택한 것에 비해, 부산대를 꼽은 인원은 1명(2.5%)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현재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이 서면과 광안리를 선호하면서 부산대 상권 역시 이들 상권에게 소비자를 빼앗기고 있다. KT 빅데이터 분석자료에 의하면,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달인 2024년 5월에 부산 청년이 주말 여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상권으로 해운대와 기장군 해안가, 송정-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서면 및 전포동 카페거리가 선정되었다.³⁾ 특히 야경 명소로 소문난 광안리 주변은 유동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도 증가했다. 또한, 2~30대가 선호하는 핫플레이스가 광안리 및 전포동 일대로 확산해 있어 서면, 광안리가 주요 상권으로 부상했다.

부산경상대 황영우 교수는 “젊은 층이 대학가보다 서면과 광안리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부산의 중심 상권 중 부산대가 유독 쇠퇴하게 된 이유는 정적이고 대학가 상권만의 특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면과 광안리에는 활동적인 액티비티와 같은 동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성대와 부경대 거리는 소규모 골목이지만 나름의 특색을 갖추고 있어 부산대 보다는 많은 사람이 찾는 상권이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대 상권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핫플레이스가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SNS가 발달한 현시점에서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될 만한 어트랙션이 없다. 반면, 서면과 광안리는 여러 콘텐츠를 운영하고 다양한 어트랙션을 갖추며 소위 MZ 세대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먼저, 최근 서면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난 ‘부산 전포 카페거리’는 2017년 뉴욕타임스에 ‘꼭 가봐야 할 전 세계 52개 장소’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2020년에는 CNN에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곳’ 중 하나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전포동만의 특색이 묻어난 카페거리는 본래 자동차·기계 관련 공구와 부품을 팔던 ‘공구 골목’이

3) 서유리, “주말 부산 청년 물리는 곳은 광안리·서면”, 부산일보, 2024.03.07.,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30718452318851>

었다. 서면 개발로 기존 상인들이 상권을 떠나게 되었고, 2010년 전후로 바리스타들이 기존 건물을 개조 및 리모델링하면서 지금의 형태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었다. 전포 카페거리는 창업 공간과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고, 소상공인의 노력과 함께 정부 지원에 힘입어 도시경쟁력을 회복했다. 이는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린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로도 손꼽힌다.⁴⁾ 쉽게 찾을 수 있는 아기자기한 표지판과 안내 문구, 가는 곳곳마다 눈을 즐겁게 하는 벽화, 전포 카페거리와 각 가게의 특색을 살린 간판들이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다. 부산진구 이점로 창조도시과장은 “전포 카페거리는 서면 변화가와 달리 고유한 특성을 간직한 채 자생적으로 유명거리로 떠오른 것이다. 이런 특성을 간직한 채 계속 번성할 수 있도록 구와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⁵⁾ 이처럼 자신만의 특색을 갖춘 상권이 갖는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MZ 세대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광안리는 다양한 콘텐츠와 어트랙션을 갖춘 상권이다. 우선, 부산시는 74억 원을 투자해 광안리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매일 일몰 직전부터 평일은 자정까지, 주말은 새벽 1시까지 밝히며 야간 명소로 거듭났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러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했는데,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로 ‘드론쇼’가 있다. 2022년 4월부터 연 20억 원을 투자해 토요일마다 2차례 개최하고 있으며, 2023년 관람객은 130만 명에 달했고 상설화 이후 2024년 2월까지 무려 280만 명에 이르렀다. 또한 해바라기 화단과 같은 SNS 포토존을 겨냥하며 자체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동서대 권장욱 교수는 “광안리는 바라보기만 하는 바다가 아닌 체험활동의 장으로 거듭나며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청년층을 유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⁶⁾

이외에도 광안리에서 꾸준히 차 없는 문화의 거리, 버스킹, 해변영화관과 같은 다양한

4) 하나은, “바쁜 일상 중 쉽표 하나, 도심 카페거리 풍경”, 부산이라 좋다, 2021.06.17., <https://www.busan.go.kr/news/totalnews01/view?dataNo=65509&curPage=31>

5) 김민주, “전포카페거리 거미줄 전선 없앤다”, 국제신문, 2018.02.28.,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301.22008010147>

6) 박수빈, “낮엔 레저활동, 밤엔 드론쇼...광안리에 열광하는 MZ들”, 국제신문, 2024.03.17.,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40318.22010004585>

행사를 운영하며 다양한 어트랙션 요소로 사람들을 유입하고 있다.

현재 서면과 광안리는 꾸준한 투자와 소상공인의 노력으로 상권의 매력을 끌어올릴 다양한 흡인 요소들을 선보였다. 이들은 계속 발전하는 소비자 트렌드와 정보통신 및 과학 기술에 발맞춰 여러 콘텐츠를 기획하며 상권의 변화를 거듭 꾀하고 있다. 반면, 부산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대안 상권으로 소비자를 빼앗기는 가장 큰 이유이자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 원인이다.

②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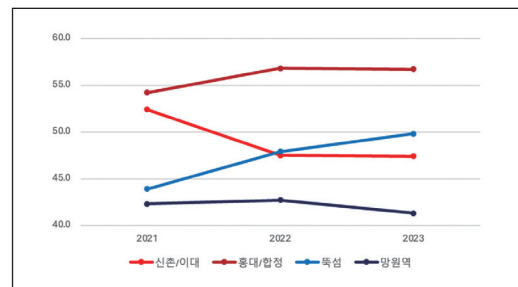
이와 같이 기존 상권이 쇠퇴하고, 대안 상권이 성장하는 양상은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 중 하나인 신촌/이대 그리고 홍대 상권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 서울을 대표하는 대학가 상권의 쇠퇴 원인으로서는 크게 높은 임대료 그리고 상권 노후화를 꼽을 수 있다.⁷⁾

〈연도별 소규모 상가 임대료〉

(단위: 천원/㎡)

상권 \ 연도	2021	2022	2023
신촌/이대	52.4	47.5	47.4
홍대/합정	54.2	56.8	56.7
독섬	43.9	47.9	49.8
망월역	42.3	42.7	41.3

출처: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위 자료를 통해 서울 주요 상권의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서울을 대표하던 상권인 홍대/합정의 경우 타 상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임대료 수준을 보인다. 반면, 신촌/이대의 경우 임대료가 낮아지는 추세이다. 대안 상권으로

7) 서유리, “주말 부산 청년 물리는 곳은 광안리·서면”, 부산일보, 2024.03.07.,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30718452318851>

주목받는 독섬과 망월역의 임대료도 살펴보자. 팝업의 성지인 독섬(성수동)의 경우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그럼에도 기존 홍대/합정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다. 망월역 상권은 네 상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보였다. 새로 뜨는 상권들에 비해 대학가 상권이 비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가 상가를 비우게 된다. 결국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가맹점 업체만 들어서고, 대학가만의 특색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가 상권을 찾던 2030 젊은 세대들은 상권만의 특색을 가진 신흥 상권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이렇게 대안 상권으로 떠오르는 곳으로는 대표적으로 성수, 망월 등이 있다. 성수동은 팝업스토어의 성지로 불리며, 독섬역 카페거리부터 성수역 주변 지역에 다양한 업종의 매장과 팝업스토어가 들어서며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변화하였다.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신사업을 테스트하거나 브랜드를 홍보할 때 성수동을 찾게 되고, 이러한 성수동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는 인근 상권의 유동 인구를 유인해 대안 상권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성수동이 MZ세대를 유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요 소비자층인 2030의 특징을 잘 겨냥했기 때문이다. 최근 SNS에 보여주기를 즐기는 젊은이들의 문화에 맞춰 인스타에 올릴 만한지가 소비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식, 쇼핑, 전시 등 다양한 업계에서도 이를 마케팅의 중요 키워드로 삼고 있다. 성수동의 경우 매주 새로운 팝업스토어가 오픈하고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체험 부스와 포토존 등 인스타그램머블(‘인스타에 올릴 만한’이라는 뜻의 신조어)한 요소가 많다.⁸⁾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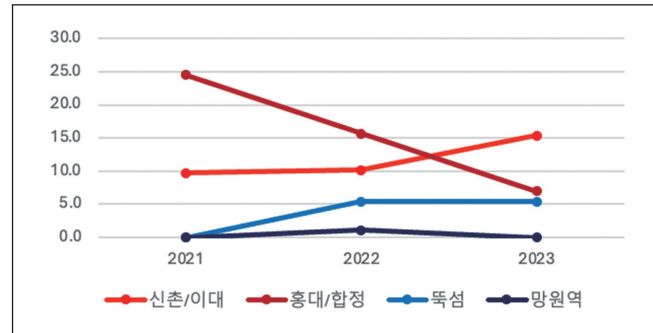
〈연도별 소규모 상가 공실률〉

(단위: %)

상권 \ 연도	2021	2022	2023
신촌/이대	9.7	10.2	15.4
홍대/합정	24.5	15.7	7.0
독섬	0.0	5.4	5.4
망월역	0.0	1.1	0.0

출처: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이러한 대안 상권의 성장 결과는 상권별 공실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임대료 상승 및 상권 노후화로 인해 신촌/이대, 홍대/합정 등 기존 대학가 상권의 젊은 소비자들이 성수(독섬), 망원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를 증명하듯 신촌/이대의

공실률은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성수동이 위치한 독섬의 경우 2022년 5.4%로 올랐지만, 이는 2023년 기준 신촌/이대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홍대/합정의 경우 2021년 24.5%라는 높은 공실률을 기록하였지만, 점차 회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했던 외국인 관광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되찾고, 해외 소비자를 집중 표적으로 삼는 마케팅을 펼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경영컨설팅트 쿠키먼앤웨이크필드코리아에 따르면, 홍대 상권은 2023년 외국인 카드 결제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으로 2019년 920억 원에서 2023년 3,250억 원까지 4년 사이 253%에 달하는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매출 상승은 중심 거리에 위치한 곳에만 한정된 것이고, 골목은 여전히 매출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서 같은 상권에 위치하더라도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 구역과 그렇지 못한 구역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¹⁰⁾

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이동 수단의 다양화

2009년 아이폰의 출시로 시작된 스마트폰의 시대는 디지털 전환을 사회 전반적으로 확장했으며, 이는 우리의 생활 모습을 변화시켰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8) 최선율, "MZ 잡으려고...카페·팝업·식품 모두 '인스타그래머블' 몰두", 중앙일보, 2023.10.1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8616>

9)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3.07.12., https://www.wfri.re.kr/ko/web/lounge/lounge.php?idx=1171&page_type=view&mode=view

10) 박수연, "홍대입구 뷰티 숍들 "매출보다는 마케팅 효과!", 약업신문, 2024.04.22.,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293375>

Ⅰ 디지털 전환은 거리 개념과 이동의 변화를 통해 공간 변화를 촉진 중

이미 생활 속에 깊게 파고든 디지털 전환

-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화로 시작된 정보의 테이터화가 사회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
 - 기업의 생산, 유통 등의 비즈니스 전반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는 것을 산업계에서 정의하고 적용되기 시작
 - 이제 산업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파고들면서 시민의 생활 변화를 자극
- 스마트폰 시대와 함께 본격화된 디지털 전환의 생활화
 - 온라인 쇼핑, 인터넷 뱅킹 등 디지털 서비스는 이미 오래된 디지털 전환의 예시
 - 2009년 아이폰의 출시로 시작된 스마트폰 시대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장하는 계기였으며, 이로 인한 생활 변화를 촉진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예약, 주문하고 원하는 시간에 배송받는 것부터 여가, 교육, 행정 등 일상의 대부분을 스마트폰 등의 온라인 수단으로 해결 가능

'이동과 거리 개념의 변화'가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공간 변화의 핵심적 요인

- 정보통신의 발달로 물리적 이동은 줄고, 거리 개념도 축소
 - 전통적으로 정보통신의 발달은 물리적 이동의 필요성 감소 촉진
 -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신속한 연결과 정보 전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간상으로 즉시 연결이 가능하고, 공간적으로 즉각적인 공간 통합이 가능
 - 정보통신의 발달은 장기적으로 거리 증가에 대한 마찰을 줄이고 공간적 상호작용을 늘여 나게 하는 효과

출처: 윤서연; 이동하; 진화연; 박동찬,

"디지털 전환 시대, 시민 생활변화에 따른 서울 도시 공간의 변화와 전망", 정책리포트, 2022, p.5

서비스를 예약·주문하고 원하는 시간에 배송받는 것부터 여가 교육, 행정 등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스마트폰 등의 온라인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신속한 연결과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하여 물리적 이동의 필요성을 감소시켰다. 또한 과거에는 이동 수단이 부족하여 쇼핑, 외식 등을 주거지 근처에서 해결하곤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중교통이 잘 갖추어져 있어,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쉽게 찾아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자차가 없는 사람들이 차량을 잠시 대여할 수 있는 일명 '카셰어링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과거에 비해 타 상권으로의 이동이 용이해진 것이다.



결론 작성하기

1. 부산대 학령인구 감소는 부산대 상권 쇠퇴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학령인구 감소 역시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저출산과 더불어 인구 유출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부산대학교 역시 이러한 지방의 현실과 맞물려 많은 사람으로부터 걱정의 눈길을 받고 있다. 몇몇 언론에서 보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 몰락’,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의 소멸’과 같은 단어가 사람들의 인식에 각인되며, 이러한 영향으로 부산대 상권 쇠퇴 원인을 학령인구 감소로 지적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하지만 실제 조사해 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2017년부터 2023년간 부산대학교의 입학정원과 재학생 수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17년 대비 2023년도 재학생 수는 약 6% 감소하였고 입학정원은 약 1%가량 오히려 증가하였다. 하지만 두 수치 모두 유의미한 수준의 증감 폭은 아니었음을 고려하면, 아직 부산대학교의 학령인구 감소를 원인으로 지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의 인터뷰에서는 알 수 있듯, 현재 학령인구 감소 수준으로는 가게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체감하기가 힘들다. 오히려 부산대학교 구성원 규모는 국내 4위일 정도로 그 규모가 절대 작지 않으며, 부산대 상권을 유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치이다.

2. 고금리와 고물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같은 경제적 요인은 자영업자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나,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 원인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요즘 자주 찾아볼 수 있는 ‘3고’에서 알 수 있듯,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요소는 모두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물가는 특히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물가 상승은 생산자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 상승한

물가로 인해 소비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되고, 생산 비용이 증가한 생산자는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그 수준을 힘겹게 유지하게 된다. 그러면 이전보다 손님이 더 증가하지 않는 이상 생산자의 이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리 역시 자영업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부채의 양뿐만 아니라 질 역시 악화한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과거 코로나19 당시 받았던 저금리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겹치면서 현재 자영업자의 부담은 훨씬 증가했다. 평소 형편이 어려웠던 가게는 경기 불황과 침체에서 더 큰 타격을 맞게 된다.

이처럼 고금리, 고물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는 분명히 가게 운영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어려운 자영업자의 형편에 부담을 가중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요인은 부산대 상권뿐만 아니라 모든 상권에 적용되는 사실이다. 똑같은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도 부산대나 다른 대학가처럼 과거에 활발했던 상권들이 쇠퇴기를 맞이하는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대안 상권들은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부산대 상권 내에서도 어떤 가게는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지만, 어떤 가게는 큰 타격을 입고 폐업을 고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제 요인이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부산대 상권 쇠퇴를 완벽히 설명하기 어렵다. 경기 침체가 대학가 상권 쇠퇴를 가속할 순 있으나, 이를 부산대 상권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산대 상권이 타 상권에 비해 갖추지 못한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상권 쇠퇴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3. 타 상권보다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상권 쇠퇴 가속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상권의 몰락 원인으로 많이 지적되는 것이 높은 임대료이다. 부산대 상권의 (소규모 상가) 임대료를 보면 34.3천원/㎡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산의 타 중심 상권인 서면과 광안리와 비교했을 때도 눈에 띄게 높은 수준이다. 분명 높은 임대료가 부산대 상권 쇠퇴에 영향을 준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몇몇 예외 사항이 있다. 앞서 2번째 결론에서도 설명했듯, 동일한 부산대 상권 내에도 불구하고 두 가게의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한 체감도가 대비될 수

있다. 또한 임대료 자체를 근본 원인으로 생각해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을 실시한다 해도 상권 자체가 활발해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높은 임대료가 쇠퇴하고 있는 부산대 상권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맞지만, 경제적 요인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역시 타 상권과 비교해 부산대 상권이 부족한 근본적 요소를 밝혀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 원인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 핫플레이스 부족과 대안 상권의 흡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이동 수단의 다양화로 인한 소비자 유출이다.

앞서 살펴본 고금리, 고물가, 높은 임대료와 같은 경제적 요인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를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 원인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렇다면, 부산대 상권이 쇠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모든 상권은 영원하지 않다. 새로 상권이 태어나고 성장기를 겪어 전성기를 맞이하고 나면, 그 후 조금씩 쇠퇴하기 마련이다. 부산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난 1990~2000년대 전성기를 맞이하고 현재 쇠퇴기를 겪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쇠퇴기에 진입하게 되면 모든 상권이 바로 몰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쇠퇴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상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부산대 상권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이다. 소비자 트렌드는 시대에 따라 늘 변하며 최근에는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형태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가 급격하게 확산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부터 기업의 행보, 제품의 형태가 모두 달라졌다.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며 오프라인 상권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고, 과거와 달라진 소비 양상으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대학가 상권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대학가 상권의 주요 소비층인 대학생의 소비 트렌드는 양적인 가성비 외에도 질적인 가성비, 스몰 럭셔리 등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독특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트렌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쇠퇴기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다양한 핫플레이스와 콘텐츠를 겸비한 대안 상권이 노후화된 대학가 상권의 소비자를 흡인한다. 부산대 상권은 앞서 살펴본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춰나가지 못하고 있어 뚜렷한 핫플레이스가 없다. 이러한 와중에 서면의 전포 카페 거리나 광안리는 지속적인 변화를 꾀하며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상권은 특색 있는 거리 조성, 독특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 SNS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들을 다채롭게 활용해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소비자층을 흡수하고 있다. 결국 부산대의 노후화와 부진한 발전이 타 대안 상권의 성장과 맞물려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다. 외에도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서울의 몇몇 주요 대학 상권도 유사한 원인으로 타 상권에게 소비자를 빼앗기고 있다. 그리고 부산대 상권 중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가게의 경우, 손님이 북적이며 대기 줄이 길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민감하게 바뀌지 않은 대학가 상권은 쇠퇴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마지막 근본적 원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동 수단의 다양화이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게 됐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가게, 상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직접 오프라인 상권으로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원하는 소비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동 수단이 과거보다 다양해지고 이용하기 쉬워지면서 이전에는 가기 쉽지 않았던 곳도 수월하게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특색 있고 소비자 트렌드를 선도하는 타 중심 상권으로의 소비자 유출을 증가시켰다.

〈해결 방안〉

1. 대학가 상인이 소비자 트렌드에 맞추어 변화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

소비자 트렌드는 시대에 맞추어 항상 변화하며, 요즘은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경기 침체, 기후 변화, 3고 등 다양한 이슈가 사회 곳곳에 퍼지면서 소비자의 소비 형태도 다채로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과 소비 변화에 상권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른 상권의 등장과 발달에 밀려 쇠퇴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인의 트렌드에 대한 유연함과 적응력이다. 이는 상권 활성화에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원동력이 된다. 특히나 대학가의 경우, 유행에 민감한 청년들이 주요 소비층이므로 소비 트렌드를 따라

가지 못하면 타 대안 상권으로 소비자를 뺏길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소비자 욕구 및 최신 유행 파악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산경상대 황영우 교수에 따르면, 부산대 상권은 상권 업종만 바뀌는 정도의 변화만 있었을 뿐, 유의미한 변화를 겪지 못했다. 이는 상권 노후화로 이어지며 상가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므로 부산대 상권은 주요 소비층인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이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들을 위한 해방구를 만들어야 한다. 대대적인 상권 리뉴얼을 통해 젊은이들과 SNS를 겨냥한 핫플레이스, 다양한 어트랙션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점적 효과를 일으켜 핫플레이스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하는 등의 넓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대학가 상인이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힘들 경우, '대학생 골목상권 서포터즈'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소상공인 지원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트렌드 분석 자료 배포 및 최신 트렌드 읽기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 골목상권 서포터즈의 일환으로, 부산대학교에서도 'PNU 골목상권 마케터'를 진행한 바가 있다. 이처럼 실제 소비층인 대학생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업은 더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2. 지자체는 현금 지원보다 본연의 임무인 상권 거리 정비와 환경개선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자영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은 제한적이다. 이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저금리 대출, 정책 지원금 등 이상의 새로운 현금성 지원을 펼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재정적 지원보다 지자체에서 도시와 상권이 재생할 수 있도록 대학가 거리 환경미화, 범죄 및 차량으로부터의 안전 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결국 상권 활성화는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소비자 관심을 끌어모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소비자에게 상권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여기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과제로 앞선 첫 번째 해결 방안에서 설명했다. 따라서 지자체는 이러한 상권의 거리를 정비하고 매력적으로 조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상권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실제 전포 카페 거리는 지역 대표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상권 환경개선을 진행했다.

미관을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 및 공공디자인 사업부터 공공 와이파이 설치, 보행 환경개선까지 상권 거리 정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¹¹⁾ 이처럼 보도블록, 벤치, 가로등과 같은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를 매력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몇 가지 예시로 골목 상권 내 차량 통제와 술집 거리 환경미화를 생각해 보았다. 우선, 부산대학교 골목 곳곳에는 차량이 드나들 수 있으며, 특히 부산대 상권 메인 도로에서는 어렵지 않게 차량이 지나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차량이 지나갈 때 보행자가 알아서 피해야 하는 이와 같은 구조는 매우 위험하게 보인다. 더구나, 최근 교통 사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커진 만큼 차량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부산대 상권 메인 도로에서 조금만 벗어난 카페 거리의 경우에는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는 길이 대부분이며 특정 시간에는 차량을 통제한다.

이러한 차량 통제 범위를 메인 거리 포함 더 넓게 확대한다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술집 거리 환경미화는 거리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범죄로부터의 안전 확보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부산대 대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 성인의 만남의 장인 부산대 술집 골목은 오후 시간대가 되면 점점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인파가 혼잡해지고 길거리는 각종 쓰레기, 구토 자국, 담배 연기와 담배꽂초들이 가득 메운다. 그래서 항상 술집 골목을 지날 때마다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황급하게 지나다녔던 기억이 더러 있다. 따라서 술집 거리를 적극적으로 정화하고 쓰레기통이나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등 소비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부산대 상인과 대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주기적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가 상권인 만큼 부산대학교와 부산대 상인이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뉴스 기사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 대구의 한 대학에서는 인근 골목 상권과의 상생 축제를 개최했다.¹²⁾ 영남이공대는 축제 기간에는 학과별로 지정된 골목 식당에서

11) 김민주, "전포카페거리 거미줄 전선 없앤다", 국제신문, 2018.02.28.,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301.22008010147>

12) 심우영, "'골목상권 함께 살려요'...대학-골목상권 상생 축제", MBN, 2022.09.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91362>

곱창을 팔아주며 대구 안지랑 곱창 골목의 활성화를 위해 상생의 시간을 보냈다. 이처럼 부산대학교에서도 부산대 상권과 함께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을 듯하다. 앞선 사례와 같이 교내 행사를 상권과 협력해 진행하거나 과거처럼 부산대 상권 곳곳에 부산대 동아리 공연 등을 할 수 있을 곳을 마련하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았다.

먼저, 학교 축제를 부산대 상권과 함께 진행하게 되면 축제 기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는 푸드트럭이나 부스를 모집해 교내에서만 축제를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이 범위를 캠퍼스로 한정하지 않고 부산대 상권과 협력한다면, 부산대학교 대학생이나 교수진 뿐만 아니라 축제를 즐기러 온 타 대학생이나 시민까지 부산대 상권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인원의 규모는 국내 4위 수준이므로 이벤트성 행사 여도 자영업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상생 축제와 더불어 좀 더 장기적인 효과를 일으킬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바로 부산대 상권 곳곳에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채널 PNU의 '부산대학로 리포트'에 따르면, 과거 부산대 상권은 청년 문화를 주도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여러 대학 동아리와 인디밴드가 모여 공연하던 공간은 점차 상업적이고 획일화된 공간으로 바뀌며 '청년 문화의 선구자'라는 타이틀은 사라졌다.¹³⁾ 이러한 과거의 명맥을 이어받아 부산대학교 동아리들이 그들의 문화를 다시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이는 단순 청년 문화의 지지를 넘어 상권 활성화에도 유의미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특히나 최근 '지역의 특색'을 강조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학 청년들의 문화 공간은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무대에 설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 정기적인 상권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오후 시간대에 무대를 중심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여 먹거리를 즐기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혹은 격주마다 플리마켓을 함께 열어 청년과 시민의 이목을 잡는 등의 정기적 이벤트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3) 채널PNU 특별취재팀, "[부산대학로 리포트] (1) 78년의 흥망성쇠", 채널PNU, 2024.03.01., <https://channelpnu.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4664>

미디어 콘텐츠

대학가에서 살아남기: 변화에 맞서라!

콘텐츠 소개

🕒 기획의도

최근 온라인에서 '부산대 상권 쇠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일부 언론과 SNS 사용자는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방의 학령인구 감소라고 주장한다. 팩트체크를 통해 경기 침체와 학령인구 감소는 부산대 상권 쇠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파생되는 잘못 알려진 부산대 상권 쇠퇴 원인을 정정하고자 한다.

먼저, 지방 관련 사회문제의 원인을 무조건 지방 인구 혹은 지방대 학령인구 감소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사고를 바로잡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사회적 이슈와 경제적 현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넓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으로, 부산대 상권 쇠퇴의 정확한 원인을 전달한다. 원인은 자영업자가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대안 상권으로의 유출과 정보통신기술 및 이동수단의 발달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비단 부산대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타 여러 대학에도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 상세설명

1. 게임 캐릭터 및 배경

*게임 제작 사이트: 메타버스 플랫폼 'ZEP'

1) 캐릭터

- ① 장사장: 펍책사거리에서 5년째 장사 중. 최근 장사가 잘 안되는 게 고민.
- ② 음식점 사장: 부산대학교 음식점 사장. 경기 침체로 직접 텃밭에서 재료를 키우고 있음.
- ③ 카페 사장: 부산대학교 카페 사장. 높은 임대료로 힘들어함.
- ④ 마케팅학과 대학생: 마케팅학과 학생. 과제로 늘 도서관에 살고 있음.
- ⑤ 전설의 상인: 과거 엄청난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그의 손만 스치면 모든 가게가 성공한다는 전설...★

2) 배경

- 스폰 장소: 부산대학교
- 박물관 및 A, B, C, D ZONE 건물 설치

2. 시놉시스

한때 대학생 사이에서 인기 있는 펍책사거리 맛집의 사장이었던 장사장. 언제부턴가 가게에 점점 손님 발길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코로나19의 영향 탓인지, 학생 수 감소 때문인지 영문을 알 길이 없는 장사장은 매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결국 장사장은 자신이 직접 대학 상권 쇠퇴 원인을 밝혀보고자 결심하게 된다. 이후 하루도 빠짐 없이 원인 조사에 몰두하던 장사장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까무룩 잠이 들고 만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뜬 순간, 장사장은 의문의 세계(부산대학교)에 도착해 있다. 어쩔 줄 모르는 장사장 옆에는 의문의 수첩이 하나 떨어져 있고, 그 수첩에는 대학 상권 쇠퇴의 비밀을 밝힐 실마리가 적혀 있다. 장사장은 이 의문의 수첩과 함께 4곳의 장소를 탐험하며 대학 상권의 비밀을 파헤치고 끝내 진실에 도달한다. 그 순간, 다시 정신이 아득해지며 쓰러진 장사장. 다시 현실로 돌아온 장사장은 의문의 세계에서 알아낸 진실로 다시 유명한 맛집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한다.

3. 배우는 내용

- '높은 금리와 물가는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 원인이다'를 결론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 '높은 임대료는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 원인이다'를 결론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 '부산대 학령인구 감소는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 원인이다'는 사실이 아니다.
-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 원인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 핫플레이스 부족과 대안 상권의 흡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이동 수단의 다양화로 인한 소비자 유출이다.

4. 게임 내 구성요소

① 부산대학교(스폰 장소)

- 접속 시, 바로 게임 스토리 팝업창이 뜨도록 설정
- 아바타 옆에 '의문의 수첩' 오브젝트 설치 → 내부를 볼 수 있으나 쪼개 있음
- 아바타 앞에 '팻말' 오브젝트 설치 → 게임 방법과 순서 설명



② A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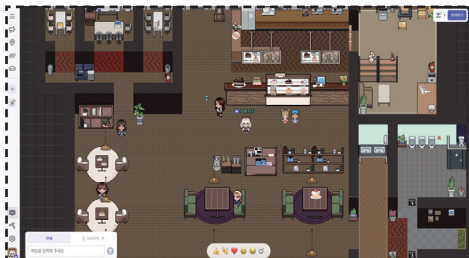
- 음식점 입구 포털 이용 → 음식점 내부로 이동
- '음식점 사장', '알바생' NPC와 경기 칩체 관련 자료 배치



- 미션: 텃밭에서 특급 레시피에 필요한 재료 조달 (텃밭 입장 시, 퀴즈)
- 미션 성공 시, 창고 비밀번호 획득 → 첫 번째 종이조각 획득

③ B ZONE

- 카페 입구 포털 이용 → 카페 내부로 이동
- '카페 사장' NPC와 '손님' NPC 3명, 임대료 관련 자료 배치



- 미션: 손님 3명이 내는 퀴즈를 풀어 받은 수익을 포스기에 입력
- 미션 성공 시, 창고 비밀번호 획득 → 두 번째 종이조각 획득

④ C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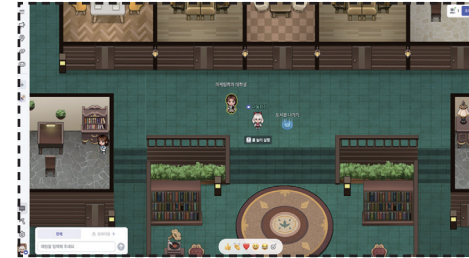
- 영화관 입구 포털 이용 → 영화관 내부로 이동
- '영화관 직원', '매표소 직원' NPC 및 학령인구 관련 자료 배치



- 미션: 키오스크에서 티켓 발권 후 예매 번호 8자리를 알아내기 (티켓 발권 시, 퀴즈)
- 미션 성공 시, 영화관 입장 → 세 번째 종이조각 획득

⑤ D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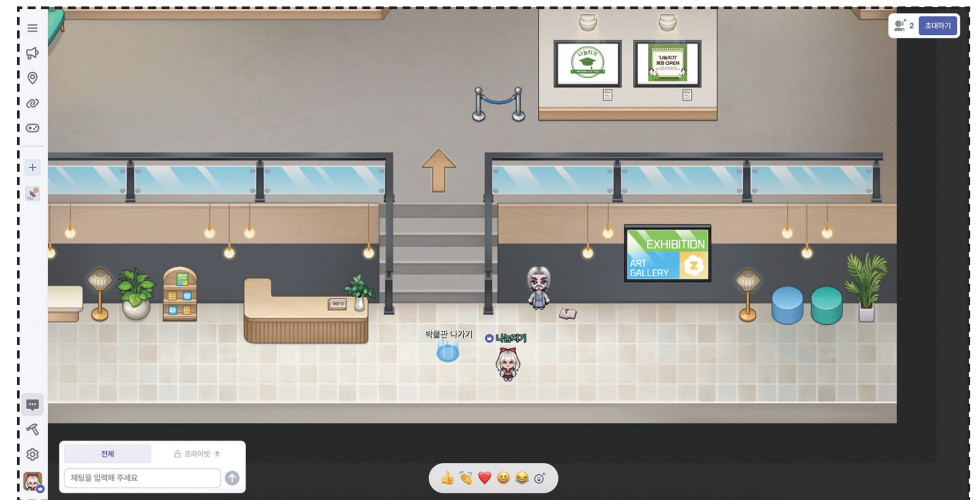
- 도서관 입구 포털 이용 → 도서관 내부로 이동
- '마케팅학과 대학생' NPC와 소비자 트렌드 관련 자료 배치



- 미션: '마케팅학과 대학생' 과제에 필요한 자료 내용 알아 오기 (=퀴즈)
- 미션 성공 시, '마케팅학과 대학생' 독서실 비밀번호 획득 → 네 번째 종이조각 획득

⑥ 박물관

- 건물 입구 '박물관 직원' NPC 설치: 종이조각 개수 확인 및 박물관 입장 비밀번호 제공 (4개의 종이조각을 모아야 입장 비밀번호 획득 가능)
- 건물 입구 포털 이용 → 박물관으로 이동
- '전설의 상인' NPC, 팩트체크 리포트 결론 카드뉴스 및 이벤트 홍보물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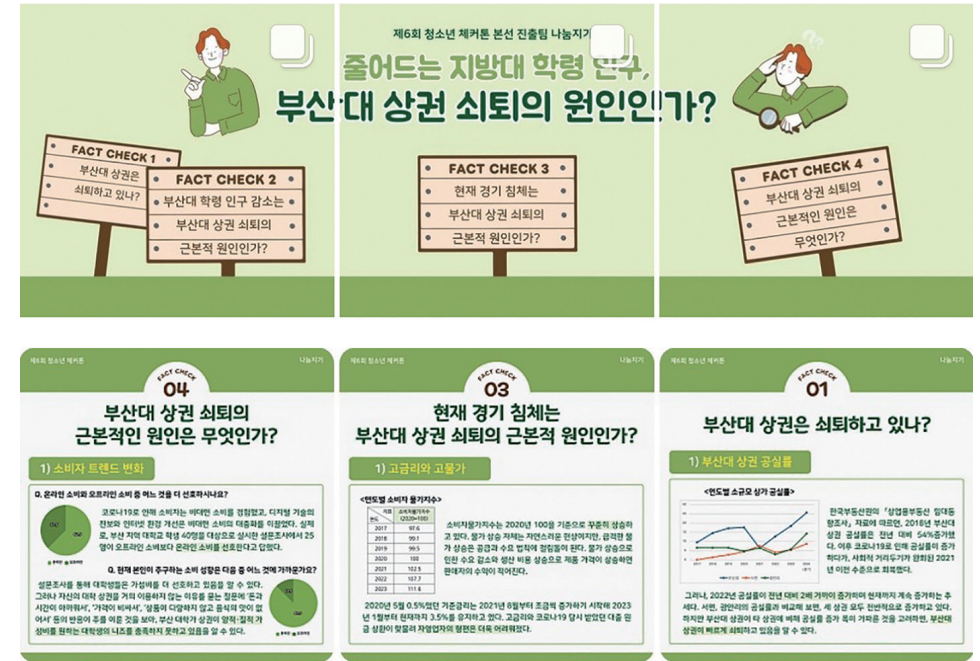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팩트체크 리포트의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자 팩트체크 리포트 요약본을 만들었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종이 책자 형식과 카드뉴스 형식 2가지로 팩트체크 리포트 요약본을 제작했다. 요약본은 크게 4가지 내용을 중점으로 제작되었으며, 종이 책자 표지에는 사람들의 흥미 유발을 위한 ‘줄어드는 지방대 학령인구, 부산대 상권 쇠퇴의 원인인가?’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담겨 있다. 그리고 요약본 본문은 총 4가지의 소주제를 팩트체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주제로는 ‘팩트체크 1. 부산대 상권은 쇠퇴하고 있는가?’, ‘팩트체크 2. 부산대 학령인구 감소는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 원인인가?’, ‘팩트체크 3. 현재 경기 침체는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 원인인가?’, ‘팩트체크 4. 부산대 상권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가 있다. 종이 책자는 각 소주제를 한 페이지에 요약했고, 카드뉴스는 소주제 1개당 하나씩 만들어 각 카드뉴스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내용을 핵심 요약하고 팩트체크 결론을 제시했다.

〈오프라인 게시 - 부산대 교내 게시판〉



〈온라인 게시 -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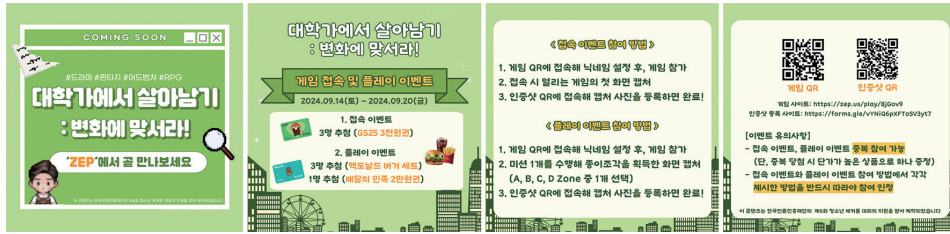
2024년 9월 12일에 팩트체크 리포트 요약본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모두 게시했다. 우선 오프라인 게시 장소는 부산대 교내 게시판 2곳으로, 1곳은 건물 안이었고 다른 1곳은 학생 유동 인구가 많은 야외 게시판이었다.

건물 안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앞이었기에 이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종종 둘러보았고, 야외 게시판은 버스정류장 앞이자 학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이었기에 버스를 기다리거나 잠시 머물다 가는 학생들이 접하기 쉬웠다.

다음으로 온라인 게시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의 '나눔지기' 팀 SNS 계정에서 이루어졌다. 각 SNS 계정에는 총 3개의 카드뉴스(팩트체크 1과 2는 하나의 카드뉴스로 제작됨)가 업로드되었다. 온라인 특성상,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사람이 본 카드뉴스를 접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학생, 청년과 같은 20~30대들의 반응이 가장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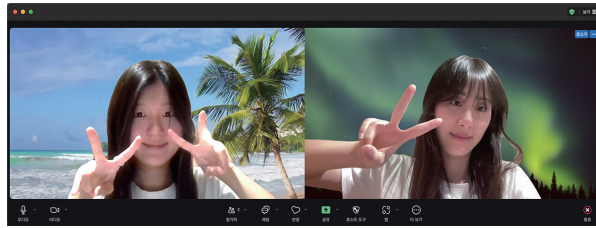
미디어 콘텐츠 '대학가에서 살아남기: 변화에 맞서라!' 게임 홍보

① 게임 접속 및 플레이 인증 이벤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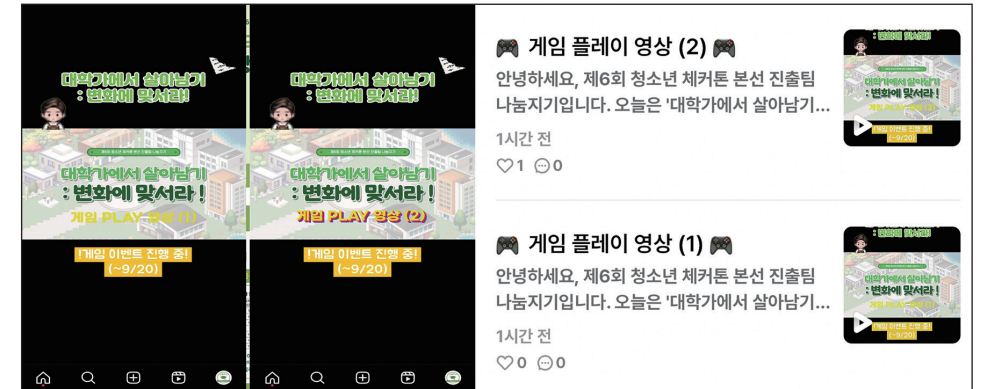
팩트체크 리포트 작성 과정을 통해 경기 침체와 학령인구 감소는 부산대 상권 쇠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방의 학령인구 감소'를 부산대 상권 쇠퇴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사회적 편견을 정정하고, 부산대 상권 쇠퇴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증한 사실을 알리고자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했다. 팩트체크 리포트 내용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미디어 콘텐츠를 다방면으로 고려했고, 단순히 콘텐츠 이용자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영상과 웹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대학가에서 살아남기: 변화에 맞서라!'를 제작했다.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 나눔지기 SNS 계정(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과 부산대 교내 게시판을 활용했으며, 게임 확산을 위해 약 1주일간 게임 접속 및



플레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게임 접속 화면(접속 이벤트) 또는 플레이 화면(플레이 이벤트) 캡처본을 구글폼으로 제출받아 추첨을 통해 각종 기프티콘을 증정했으며,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접속 이벤트와 플레이 이벤트 중복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본 이벤트를 알리기 위해, 오프라인 홍보로 2024년 9월 12일에 게임 이벤트 홍보 포스터를 팩트체크 리포트 요약본과 함께 부산대 교내 게시판 2곳에 부착했다. 그리고 온라인 홍보로 게임 오픈을 알리는 홍보물과 게임 이벤트 홍보물을 각각 2024년 9월 11일, 9월 14일에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의 팀 SNS 계정에 올렸다.

② 게임 플레이 릴스 게시



게임 접속 및 플레이 이벤트 기간인 2024년 9월 17일, 게임 및 이벤트 참여 독려를 위하여 나눔지기가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을 릴스로 제작했다. 게임의 목표 타겟층이 10~20대라는 점을 고려해 영상의 형태는 룬폼이 아닌 숏폼을 선택했다. 먼저 게임 플레이 화면을 녹화하고, iMovie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필요한 장면을 삭제한 뒤 영상을 배속시켰다. 이후 Vrew 프로그램을 이용해 썸네일과 마지막 화면을 추가하고 자막을 적절히 삽입하여 릴스를 완성했다. 이를 1편과 2편으로 나누어 총 2개의 영상을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의 팀 SNS 계정에 올렸다.





참여소감

박은교

아이러니하게도,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검증한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정보를 탐색 및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결론을 내는 전 과정 중 쉬운 과정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과 계획서 작성 때는 정보를 의심하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 저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내가 타당하게 보이는 언론의 내용에 올바른 의문을 품은 것이 맞는지, 이 의문이 세상의 편견을 부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습니다. 또한 관련 뉴스 기사를 찾아볼수록 쏟아지고 반복되는 정보 속에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전문 기관의 통계자료, 연구 결과를 수집하고 주제 관련 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의 사고가 편협한 세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접 손과 발로 현장에 뛰어들며 찾아낸 정보를 통해, 제가 그동안 여과 없이 접한 정보들 속에서만 사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지만 그만큼 중요했던 정보 수집과 결론 도출 단계에서는 각종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인터뷰를 시도하고 이를 진행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거절과 시도 끝에 실제 현장에 있는 자영업자와 학생들, 본 문제에 대한 깊은 견문을 가진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면 자료 수집과 온라인 자료 수집에서 항상 되새기며 유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보를 가려내지 말자.'입니다. 저희는 사실을 검증하는 사람이기에 개인적인 편견과 사고를 집어넣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만을 선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선 리포트 피드백과 함께 이를 유념하며 더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여러 시각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을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의견이 엇갈리는 정보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공평한 시선으로 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앞선 과정을 통해 작성한 리포트를 미디어 콘텐츠에 녹여내는 것 또한 저희

청소년 체커톤 팩트체커로서의 활동이었습니다. 저희는 미디어 콘텐츠 이용자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정보를 알아내는 즐거움을 알았으며 하는 마음으로 방탈출 형식의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게임을 만든 경험이 없었기에 많은 역경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다시는 얻지 못할 값진 경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팩트체커로서의 모든 활동을 거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를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해왔던 뉴스 기사, 웹페이지 정보, 여러 검색 자료 등으로부터 얻은 지식의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고 단순히 수용하기만 했던 과거의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정보를 접할 때 질문을 던지고, 이 사실을 검증하는 '팩트체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깨달았습니다. 본 활동은 저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떠한 정보의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 정말 그 결과가 과장 없이 발생한 것이 맞는지, 그 원인과 결과는 실제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요인이 근본적인 원인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생각해 보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 사고 과정은 정보와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뛰어 넘어 저 자신을 성장시키고 정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박서현

팩트체커로서의 활동은 저에게 많은 배움과 기술을 선물해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실 명제에 대해 여러 대답하는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팩트체크 관련 자료 조사 시에는 각기 다른 출처의 자료들을 비교하고 검토하면서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예선 과제 시작부터 본선 과제 마무리까지의 길었던 과정을 되돌아보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의미 있는 팩트체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수많은 경제 기사와 최근 이슈를 찾아봤습니다. 그럼에도 적절한 팩트체크 주제를 정하지 못하여 원점으로 돌아가 천천히 일상생활 주변을 살펴보게 되었고, 끝내 재학 중인 대학교 상권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팩트체크'라는 것이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에서도 출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선 과제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꼽자면 전문가 인터뷰였습니다. 저희 팩트체크 리포트에는 부산대 상권과 타 부산 상권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었기에, 부산 소재 대학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께 자문을 시도했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교수님의 연구 분야와 논문을 살펴보고, 정말 감사하게도 도시공학, 부동산학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저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견해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팩트체크 리포트를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질문임에도 전문가의 연구 분야에 따라 방점을 두는 곳이 달랐으며, 덕분에 주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탐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선 과제에 대한 전문가 피드백을 하나씩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선 과제를 할 때 무심코 넘어간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달려 있었기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며 팩트체크를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꼼꼼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는 단순히 주어진 정보를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제 선정부터 팩트체크 리포트를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팩트체크의 필요성을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팩트체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슈와 경제적 현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넓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팩트체커로서의 활동을 경험 삼아,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스스로 진실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팩트체크 선도자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